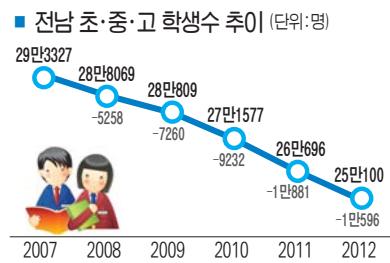


전남 학생수 1년새 또 1만명 줄었다

42개교 올 신입생 없어...매년 가파른 감소
20년새 700개교 문 닫아 교육기반 흔들



여수 초도초교는 올해도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치르지 못했다. 분교가 아닌 어엿한 분교지만 전교생이 9명에 그치고 있는 데다 교사는 고작 2명이다. 더구나 올해 전남 전체 87개 분교장 가운데 신안지도초교 선처분교장 등 무려 42개교가 신입생을 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교육이 학생들을 타 학교로 전학하도록 권고했다. 인구 감소, 출산율 저하로 인해 학생수가 격감하면서 전남 공교육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교육청이 집계한 2012학년도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예상 학급 및 학생수는 총 837개교 25만100여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학교수는 1개교, 학생수는 무려 1만500여명(4%)이나 줄었다. 더 큰 문제는 학생수가 7260명(2009년), 9232명(2010년), 1만881명(2011년), 1만596명(2012년)으로 해마다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990년 전체 2119개교였던 학교수도 올해 1391곳으로 무려 700개교가 문을 닫았다. 초등학생수 감소는 더 심각하다. 학생수가 지난해 11만5500여명에서 올해 10만7300여명으로 무려 8200여명이 줄었다. 중학교는 지난해 7만1800여명에서 올해 6만9800여명으로 2000여명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남에서 '복식수업'(한 학급에서 2개 학년을 교사 1명이 가르치는 수업형태)이 불가피한 초교가 줄잡아 126개교에 달한다. 전체 학생수 60명 미만 고교가 11개, 6학년 이하 학교도 35곳이나 된다. 이들 학교는 사실상 수업이 파행적으로 진행되는가 하면 부모들이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전남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학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이 절실하다는 여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학교의 적절한 통·폐합을 바탕으로 교육 기반을 되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소규모 학교에서는 사실상 교과과정 파행운영 등 정상적인 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학교 경쟁력 강화 등 대책이 절실하다"며 "전남교육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4.11 총선은 광주일보와 함께

광주일보는 50일 앞으로 다가온 19대 총선이 한국 정치의 틀을 바꾸는 '선거혁명'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총선 기획물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총선이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공정보도를 선도하며 감시와 비판을 강화하겠습니다.

광주일보·KBC 광주방송 여론조사 실시 광주·전남 20개 선거구 중 격전이 예상되는 곳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전문가에 의뢰해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유권자와 후보자에게 선거 관세와 여론의 향배를 가능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다양한 선거 기획보도 광주·전남지역 관심 선거구와 치열한 격전이 예상되는 선거구를 골라 관세를 심층분석하는 기획보도를 수시로 게재합니다. '4·11 총선 이곳이 격전지'와 '총선 돌보기', '말·말·말', '총선 현장', '정책 검증' 등 코너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뉴스를 전달하겠습니다.

전국 총선 판세 한눈에 한국지방신문협회 및 채널A와 공동으로 전국적인 판세분석을 결하여 유권자들의 공감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거물들의 격돌'이 벌어지는 수도권과 영남, 충청 선거구 소식도 생생하게 보도합니다.

정책으로 승부하는 매니페스토 선거 유도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을 꼼꼼히 검증하는 것은 물론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발전에도 미치는 영향 등을 유권자에게 자세히 전달하겠습니다. 광주일보는 매니페스토 운동의 정착을 위해 선거기간은 물론 선거가 끝난 후에도 공약의 검증 및 이행과정을 취재·보도하겠습니다.

19대 총선 특별취재단 가동 광주일보는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특별취재단을 가동합니다. 광주일보 4·11 총선 특별취재단은 한국정치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이번 선거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도, 정치문화의 선진화를 앞당기고 유권자들의 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4·11 총선 특별취재단>**
- ◇정정부 ▲정우식 부장 ▲홍행기 차장 ▲최권일 차장 ▲김지을 기자
 - ◇서울취재팀 ▲임동욱 팀장 ▲박지영 차장 ▲이종영 기자
 - ◇사회1부 ▲윤현석 차장 ▲김대성 기자 ▲김경인 기자
 - ◇사회2부 ▲송기동 차장 ▲기원태 국장 ▲이상선 부장(목포) ▲고규석 차장(목포) ▲박성태 기자(여수)
 - ◇김정화 기자(여수) ▲예정철 부국장(순천) ▲김은중 기자(순천) ▲박영진 차장(광양) ▲최승열 부장(나주) ▲정철현 기자(나주) ▲남철희 기자(강진) ▲주각중 부국장(고흥) ▲김계중 국장(곡성) ▲이인택 부장(구례) ▲노정훈 기자(담양) ▲김민준 기자(무안) ▲신상근 기자(보성) ▲김윤성 기자(별교) ▲조완남 부장(신안) ▲조의상 기자(영광) ▲문병선 부장(영암) ▲이상우 차장(영암) ▲정은호 국장(완도) ▲김용호 기자(장성) ▲김용기 부부장(장흥) ▲박현영 부장(진도) ▲황운학 기자(함평) ▲박희석 차장(해남) ▲조성수 차장(화순) ▲박금석 국장(군산) ▲강철수 국장(전주) ▲류정영 부국장(익산) ▲박기섭 국장(정읍) ▲백선 차장(남원) ▲홍윤선 기자(김제) ▲이동희 부장(순창)
 - ◇시진부 ▲나명주 부장 ▲최현배 차장 ▲김진수 기자

4.11총선 D-50 호남정치 위기 참여로 극복하자

4.11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전남지역 유권자들이 적극적인 선거 참여로 '호남 정치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20일 지역 정치권에서는 4·11 총선이 호남 정치권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지역 정치권이 과감한 도전을 통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점차 몰락함에 따라 지역 유권자들이 이번 총선에 적극 참여, 호남의 미래를 열어갈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민주통합당의 국민경선은 지역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동원 경선'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실제로 민주통합당 일부 예비 후보들은 기존의 조직력을 믿고 컷-오프

만 통과하면 '금빛지'는 '때어 놓은 당상'이라는 오만한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동원 경선이 현실화된다면 지역민과 지역 정치권의 신뢰는 더욱 약화되면서 '호남 정치권의 위기'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지역 정치권에 대한 신뢰 붕괴는 리더십의 위기를 부르고 이는 다시 호남 정치권의 위기를 가속화시켜 총선 때마다 '호남 굴락'이 되풀이되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 유권자들이 민주통합당의 국민경선 선거인단에 적극 참여, 호남의 미래를 열어갈 후보들을 스스로 검증하고 선출하는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민주통합당 1당 구도도 집약되는 지역 정치의 배타성, 순혈주의도 이번 총선을 통해 타파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정치적 비전이 있다면 새누리당은 물론 통합진보당, 무소속 후보 등에도 적극적인 지지에 나서서 호남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총선

결과는 호남 정치권의 미래 10년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호남 정치권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결국 지역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 여부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선거인단 모집 첫날 콜센터 먹통

민주통합당이 20일 4·11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첫 선거인단 모집에 나섰지만 전화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콜센터가 불통돼 신청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관련기사 3면> 광주·전남 예비후보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민주당 콜센터를 통해 선거인단을 신청하려는 유권자들의 전화가 폭주하는 바람에 콜센터 상담원과 연결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이에 따라 각 예비후보 측은 인터넷(www.21.kr) 접속을 통해 선거인단 등록을 권유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전남 모 예비후보 측은 "그동안 관리해왔던 선거인단 명부를 인터넷 접속을 통해 등록하느라 눈 코 뜰 새 없었다"며 "어느 후보가 선거인단을 많이 접수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리기 때문에 선거인단 모집 시한인 29일까지는 말 그대로 전쟁"이라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2012 특종의 기운을 담은 명품 보루네오

반값가구 출시

이런 미르 보타닉가든

Season.1

이런 이유

₩998,000
3점 set (장롱, 침대, 서랍장) 170만원대

₩898,843
신상 신부님 용의 기운을 받아 88세까지 팔팔하게 사세요
3점 set (장롱, 침대, 서랍장) 150만원대

가정용, 사무용 전국 대리점 및 딜러 모집중

* 본 제품의 취급을 원하시는 점주님께서는 문의 바랍니다. * 다량 주문으로 인한 사전 예약이 필요한 제품입니다. * 상기 상품 가격은 10차 표준형 기준가입니다.

동광주점(주원동) 032-263-0394 광주점(신성동) 062-954-0394 목포점 065-242-2223 해운대점 062-955-8830 목포점 065-279-2277 군포점 062-350-0222 부산점(신기) 063-682-9698 여수점 061-684-0633

품질은 '올리고', 가격은 '착하게' **반값** 가구

신혼들을 위한 **반값** 가구

보루네오 가구

2012년 대한민국 물가잡기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하다!

반값Dream

미르 보타닉가든 구매 고객께 드리는 더 특별한 이벤트!

▶Event. 1
'보루네오샵 코타카나발루 동정' 응모권 기회 부여

▶Event. 2
주문번호 끝자리가 88번인 모든 구매 고객에게 '꼬모도 커튼 화창대' 증정

* 미르 보타닉가든 구매자 대상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www.bif.co.kr **BIF 보루네오**

2012 봄맞이 정기 Festival 2012.02.22 ~ 4.30

Event.1 할인 행사 최대 25% (Living & Dining)

소파 (LSFB03, LSF807) 식탁 (MDT1030, DDT1050, KDT1170) 거실장 (SB1090)

Event.2 사은품 증정
테팔 와이드 그릴, Lock & Lock 용기세트, 고급 가죽클러너

Event.3 경품 이벤트 (보루네오가 기름값을 50만원 쓴다)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300만원 이상 20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500,000 이상

문의 1577-8066 032) 420-8773

봄맞이 정기 프로모션 반값가구 출시